

키를 쥘때 틀리기 쉬운 점

오늘은 중학교에서 건강진단을 하는 날이다. 3학년 위생반원들이 신체 검사를 도우러 나왔다. 신장, 체중, 가슴둘레, 앉은키 등을 재는데 대하여 양호교사로 부터 주의를 받고 각기 담당부서에 배치되었다.

신장을 재는데 나간 K군은 자신있게 하급생들의 자세를 고쳐 주고 있

었다. 「양발목을 모아 똑바로 서라, 배를 내지 말고 턱을 붙이라 그리고 등허리와 뒷머리를 기둥에 기대는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양호교사가 가르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K군의 설명은 어디가 틀렸을까?

×

×

×

신장을 재는 것은 별것이 아닌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재는데 따라 오차(誤差)도 크다. 조금이라도 정확히 재려면 특히 머리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신장을 재는 기계는 기둥에다가 직각으로 머리끝을 누르는 막대기(橫規)가 붙어 있다. 이 막대기가 머리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바르게 닿아야 한다. 그러나 머리끝 부분이 어디쯤인지를 가려 내기가 실제로는 매우 힘들다. 이것은 머리모양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머리위치를 정하는 표준으

로 머리를 옆에서 볼때 귀구멍과 눈 밑부분이 수평이 되도록 하는 이안수평위(耳眼水平位)가 있다. 그러나 머리자체는 똑바로 세운 목위에 자연스럽게 위치해야 한다. 이렇게 할때 신장재는 기계와 뒷머리는 꼭 붙지 않고 사이가 나게 마련이다.

K군은 뒷머리를 기둥에 기대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되면 올바른 신장이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학교나 가정에서 신장을 쥘때 재는 사람이 뒷머리를 기둥에 꼭 붙이고 재는데 이것은 잘못이므로 고쳐야 할 것이다.